

Session 07 빌라델비아 교회 : 영원한 상급을 받기까지 충성됨 (PHILADELPHIA : Faithfulness unto Eternal Rewards, Part 2)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7-13)

I. 주요 메시지 : 예수님께 충성됨으로 영원한 명성을 얻음

- A. 예수님께서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충성된 자들을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이생에서의 순종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높이시며(9절),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그들이 승리 가운데 걸어가며(10절), 다가올 시대에 권세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 있게 될(11-12절) 축복의 문을 그들에게 여실(8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며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에 대해 초청받았다. 이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최고의 영광과 위대함의 모습이다.
- B. 이기는 자는, 그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한 성숙한 순종을 계속해나가는 자이다.
- C.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그분의 나라에서 통치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이는 그의 순종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제자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 19:27-28)

- D. 이 서신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이 요한복음 14:21-23절에 기록한 약속을 더욱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분 자신을 보이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수백 년을 걸쳐서 풀려지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하나님의 즐거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남)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 14:21-23)

- E. 계시록 3:7-13절은, 이사야 22:15-25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제일 신하인 셉나의 자리가 엘리아김으로 바뀔 것을 예언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놓으시기 위해, 엘리아김의 어깨 위에 다윗 집의 열쇠를 두심으로 이스라엘 왕궁의 재원을 열고 닫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엘리아김)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25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엘리아김의 위치)이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 22:22,25)

II.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 : 8가지 약속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 3:8-12)

- A. 약속 #1 :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 예수님께서서는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을 그분의 영원한 나라(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영원한 다스림)의 영광스런 통치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 이는 이 땅에서의 그들의 순종에 따른 초청이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계시를 엿볼 수 있는 영적인 열린 문으로 초청하신다.
- B. 약속 #2 :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 예수님께서서는 충성된 자들을 박해하던 믿지 않던 자들이 천년왕국 때에 충성된 자들에게 존경을 표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다(사 45:14; 49:23; 60:14).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며, 이는 그들이 핍박했던 1세기의 성도들이 보는 앞이 될 것이다. 거짓말하던 유대인들은 다가올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발 앞에서 존경을 표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10-11)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사 60:14)

- C. 약속 #3 :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실 것이다.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곧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 D. 약속 #4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 기둥이 된다는 것은 천년왕국의 때에 명예와 권세의 자리에 있게 됨을 의미한다. 기둥은 안정감과 견고함과 아름다움과 영속됨을 나타낸다. 또한 기둥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 E.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건물의 한 부분이 되지만(엡 2:21-22), 어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권세와 책무와 명예를 얻는 기둥의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베드로)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 (갈 2:9)

1.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상급으로 받았다. 그들은 중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권세의 자리를 받게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영원까지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분의 “기수¹⁾”의 자리에서 통치의 역할을 맡게 됨을 의미한다.
 2. 고대에는 어떤 이가 그들의 도시를 특별한 방법으로 섬겼을 때, 그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을 우상 신전에 세웠다. 고대의 기둥들은 사람들을 칭송하고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기둥(묘비)을 세웠다(창 35:20).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헌신에 대해 “기념하는 기둥”을 세우실 것이다. 천년왕국 때에는 이집트 땅에 이러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사 19:19).
- F.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명예로운 자리에서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 이사야 22:15-25절에서 엘리야김은 높임을 받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 그에게는 끝이 있었다(사 22:25).
- G. 기둥들은 건물의 무게를 견디며 과거의 위대함을 가능하게도 하지만, 건물을 아름답게 하기도 한다.
- H. 야곱의 열두 아들과 열두 사도들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에 쓰여 있게 될 것이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14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계 21:12-14)

1)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

I. 우리는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의 기둥들을 통해 이 약속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1. 솔로몬은 성전 앞쪽의 문에 두 개의 큰 놋(청동)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붙였다(왕상 7:15-22; 대하 3:17). 그는 하나를 야긴(고정, 불변)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를 보아스(힘)라 이름 붙였다. 이는 아마 “큰 불을 피우는 제단”으로써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곳이었을 것이다. 각각은 등대(lampstand)와 같이 꼭대기가 기름 대접에 연결되어 있었다(왕상 7:41; 속 4:3). 이 엄청난 향은 성전의 정면에서 빛을 내며 서 있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불과 구름 기둥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이 기둥들은 금과 사슬 모양의 뿔과 석류와 백합화 모양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2.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각 면마다 20개로, 총 60개의 놋 기둥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다(출 27:10). 성막문과 두 번째 장(베일)에는 금으로 싹 기둥을 세웠다(출 26:32,37).
3. 불과 구름 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움직이는 기둥이었다(출 13:21-22; 14:19-24; 33:9).
4. 이스라엘은 시내산 자락에 열두 개의 기둥들을 세웠다(출 24:4).

J. **약속 #5 : 내가 하나님의 이름(한글 KJV : 내 하나님의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갈망과 권세를 받으며 동역자의 위치에 있게 되며, 그분의 마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깊은 계시를 받게 됨을 말한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 22:4)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히 10:16)

1.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진 순금으로 만든 패를 이마에 두었다(출 28:36-38). 성도들은 그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을 것이다(계 7:3; 14:1).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될 것이다(계 22:4).
2.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4번 부르시며 그분과의 관계를 강조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명확하게 “내 하나님의 이름(한글 KJV)”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제사장적인 용어로서, 성삼위에 대한 신학을 축소하는 부분도 아니며 성자 종속설²⁾이나 아리아니즘³⁾이 아닌,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제사장적인 직무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K. **약속 #6 : 내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 이는 하나님의 성에서의 권세를 나타내며, 이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한다. 어

2) 아버지인 신은 자식인 신(예수)보다 우위이며, 자식인 신은 성령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설.

3)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 파의 의견

편 이들은 도시에 대한 열쇠를 부여받거나 그 도시의 아버라 불리며 그 도시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한 독특한 권세와 헌신과 이해함이 있음을 드러낸다.

- L. 약속 #7 : 내가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 이는 예수님의 마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를 말한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계시록 19:12절에서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더 충만한 계시를 말한다.

...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계 19:12)

- M. 약속 #5-7에 대한 요약 : 사람의 영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분량의 친밀함은 예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세 가지 이름 즉,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계시록 2:17절과 3:5절에는 신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신자들의 이름이 강조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된다.

- N. 약속 #8 :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 마지막 때에 닥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죄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것에 대해 약속하신다. 이 시험의 때는 로마 제국이 알려진 몇몇 나라들에 대해 핍박을 가한 1세기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예언적으로는 환란 때의 온 세계를 지칭한다.

III.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함 (계 3:10)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 3:10)

- A. 이는 휴거의 시점에 연관되어서 성경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면하게 됨”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것이다. “시험의 때”는 대 환란을 말한다. “면하게 함”에 대한 두 가지 주요 해석은, 시험의 때가 닥쳤을 때 “환란 가운데 보존”(환란 후 휴거) 또는 “상황 가운데서 옮겨짐”(환란 전 휴거)의 두 가지이다.
- B.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에서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권능과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다. 이는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동시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환란 후 휴거설의 입장). 예수님께서서는 큰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 대해 약속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공격(유혹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충성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보호”하시며, 환란의 때에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육체적으로 보호하실 것”에 대해 약속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지 않는다(살전 1:10; 5: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살전 5:9)

- C. 요한복음 17:15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성도들을 상황 가운데에서 데려가시도록 기도하지 않으셨다. 오히

려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하심으로,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보존하시기를”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을 데려가시기를 구함이 아닌, 명확하게 보존되기를 구하셨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 17:15)

- D. 나 자신은 환란 전 휴거에 대해 가르치는 교사가 이러한 순종 가운데 보존될 것에 대한, 약속의 “조건적인 측면”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오직 인내하여 이기는 자들만이 환란의 때에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만일 이 말씀이 환란 전 휴거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순종해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휴거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며, 이는 오직 충성된 자들만이 휴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충성된 자들이나,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들림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다(고전 15:51-52; 살전 1:10; 4:16-17; 5:9).
- E.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인 보호하심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며, 이는 때로 그분의 심판의 불 가운데에서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는 육신적인 보호하심을 말하기도 하며, 그분의 심판이 특정 지역을 비켜가게 될 것을 말하기도 한다. 궁극적인 보호하심은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11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덮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 이르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 21:34-36)

- F. 교회는 이 어려움의 때에 사단의 분노 가운데 핍박을 당하며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 환란의 때에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엡 6:13-16)

- G. 하나님의 진노와 역병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부어질 때, 많은 이들이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그분의 심판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 가까이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충성되게 서 있도록 하실 것이며,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실 것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 3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 5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6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 10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

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
이라 12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13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
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 (시 91:1-14)

H. 성도들은 시험의 때에(시험 가운데에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 (1) 노아는 홍수에서 건지심을 입었다(창 6-8장).
- (2) 롯은 소돔에 쏟아지는 불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입었다(창 18-19장).
- (3) 이스라엘은 애굽에 쏟아지는 역병 가운데에서 보호하심을 입었다(출 4-12장).
- (4)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단 6장).
- (5) 세 명의 젊은 히브리 청년들은 풀무에 던져졌지만 풀무불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었다(단 3장).
- (6)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여셨다(행 16장).

I. 이 시험의 때는 “온 지구상(*oikoymenes*,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이 시험이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는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계 6:10; 8:13; 11:10(두 번); 13:8,14; 17:8)로써 하늘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빌 3:20)과 대비된다. 시험의 때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며, 신자들은 이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나, 이 보호하심은 휴거에 의한 것이 아닌 악한 세력들(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로부터의 영적인 보호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보호하심을 입는 것은 휴거에 의한 것이 아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의 증가된 영적인 보호하심으로 인할 것이다.

J. 환란 전 휴거론자들의 가르침은 이 말씀을 환란의 시기에 휴거됨을 통해 땅에서 옮겨지는 것으로 본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구상에 임하는 특정한 환란의 “시간대”에 성도들이 죄에 대한 타협과 핍박에 자신을 내어주는 대신, 휴거됨을 통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K. 환란 전 휴거론자들은 이를 “시험의 때”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이는 사도들이 환란 가운데 걸어 나왔으며, 교회가 역사를 통해 환란을 거쳐 나온 사실들을 간과하는 것이다. 교회가 역사상 가장 정결케 되고 영광스럽게 되어가며,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충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L.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면한 시험에서 충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더 큰 시험의 때에 그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대 환란의 시간대에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지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한다.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들의 순교를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왜 교회들이 이 시간대에 하늘로 올라가버려야 하는가?

M. 대 환란의 때에, 모든 성도들은 사단의 분노로 인해 육신적인 해를 입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많은 이들은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단 7:21,25; 8:24; 11:33-35; 12:7,10; 계 6:9-11; 7:9,14; 9:21; 11:7; 13:7,15; 16:5-7; 17:6; 18:24; 19:2; 마 10:21-22,28; 24:9; 눅 12:4-7; 21:16-19; 요 15:18-16:4).

N.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원 안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핍박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사랑 가운데 강건하며, 충성되게 서 있는 것이다. 이 약속은 핍박을 견뎌 나온 충성된 자들이, “시험의 때”에 실패하지 않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보증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은 충성되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어려움들을 견디도록 격려를 받았으며, 그들은 이것이 더 큰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 충성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으로 준비케 되는 것임을 알았다.

IV. 순종을 굳게 잡으라 : 면류관을 잃지 않도록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 3:11)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전 3:15)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요이 8)